

제 목 :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

성경말씀 : 마가복음 5 : 1 ~ 20

귀신이 있느냐 ? 없느냐 ?

그 존재의 유무는 옛날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논란과 상관없이 귀신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음이 성경말씀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귀신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줄 아는데 이는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나 무속인들에게 속아서 망할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로 천국에 들어가 평화로운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 값을 지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일토록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귀신이 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천국에서 쫓겨난 것으로 두목은 마귀 사단이며 그 졸개들이 귀신, 악령, 잡귀, 더러운 영이라는 이름 등으로 활동한다.(벧후2:4, 유다1:6)

둘째, 귀신은 사람을 해롭게 하며 망하게 한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영향력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영혼의 의지를 주도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행케 하며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하는데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

1) 무덤사이에서 생활한다.(3절)

무덤사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더럽고 누추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불결하여 깨끗이 하기를 거부하며 더럽고 썩는 냄새가 나는 음침한 생활을 하며, 밝고 깨끗한 환경이나 질서가 있거나 정돈 된 환경을 싫어한다.

2) 발광(發狂)을 한다. (3-5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정시키지 못하고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 미쳐 날뛰며 괴력을 받아 쇠사슬도 끊고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3)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누가복음13:10-13 신117)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의학적으로 진단이 되지 않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등은 마귀 귀신의 괴롭힘이며 그로 인한 질병이다.

4) 욕심을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에베소2:3 신311)

삶을 위한 본능적인 욕심이 아니라,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욕심으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며(가룟 유다) 그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등은 다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 나타나는 일이다.

5) 살인하며 거짓말을 한다. (요한복음8:44 신160)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말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마귀 귀신의 충동을 받은 때문이며 동생을 죽이고도 안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도 마귀 귀신의 종노릇을 한 것이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 하였으니(요한1서3:15 신391)

누구를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때문이다.

6)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불신한다. (고후4:4 신289)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도 마귀의 꼬임에 따른 것이며, 오늘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것도 귀신의 꼬임에 넘어간 때문이다.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불신하는 것 역시 마귀와 귀신의 미혹에 빠져서 망할 길을 가는 것이다.

셋째, 귀신은 짐승도 해롭게 한다. (11-13절 창세기3:1)

귀신들이 돼지들을 이끌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했다.

마귀 귀신의 무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짐승도 망하게 한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귀 귀신의 무리는 끊임없이 접근하여 미혹하고 있다. 마귀 귀신의 무리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

1)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의 술수와 충동과 미혹을 분별해야 한다.

2)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것들을 대적해야 한다. (미가16:16-17)
대적하는 대로 승리하고 승리하면 하늘에 축복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42 (새 찬송가 1, 14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니

◎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이에서 나와 만나니

○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 이제는 아무나 죄사슬로도 맺 수 없게 되었으니

○ 이는 여러 번 죄사슬과 고랑에 매였어도

◎ 죄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제어할 수 없음이더라.

○ 그가 예수께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더라.

- 아 멘 -

찬 송 : 500 (새 찬송가 446)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가복음 5 : 1 ~ 20 신 59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88 (새 찬송가 348)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8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준자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정명숙 집사 (다음 홍희석 집사)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유정숙 집사 (다음 김영자 집사)

기 도 : 유미애 집사 (다음 임수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인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 제직모임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3시에는 예전대로

월례제직모임이 있습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여름 사경회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이병규 목사님의 성경해설 사경회가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4.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백

☺ 김준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백

제 목 : 결혼과 이혼

성경말씀 : 마태복음 19 : 3 ~ 9

결혼과 이혼이 빈번해진 세상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데 불행도 같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결혼은 무엇이고 이혼은 무엇인가 ?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드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교제하거나 접촉하기 전에 아내 하와를 주셨다. 여자인 하와 역시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고 제일 처음 대면하고 함께 한 것이 부모형제가 아닌 바로 남편 아담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창1:27-28)
생육하고 번성하려니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 사랑에는 거리가 있는 것이나 가로막힌 것이 없이 순수한 것이었다.

돈, 명예, 출세, 연구, 미모, 취미, 사상, 정치, 이기심, 부모나 친구, 직장이나 사업, 또는 자녀나 자존심 등, 남편과 아내 그 중간에 그 무엇도 끼어들거나 가로막힌 것이 없이 편안하게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 결혼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대하신 부부의 관계였다.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부부가 힘을 합하여 감당하고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는 것, 여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고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하며 사랑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고백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순수하고 친근하여 가로막힌 것이 없는 이 부부 사이에 그 무엇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돈이 끼어들고, 출세욕이 끼어들고, 취미나 학문 연구, 이기심이나 어떤 사상, 부모 형제 자녀나 친구, 또는 죄가 끼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 가장 친근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나눠야 할 부부사이 가 가로막히고 멀어지고 다른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므로 서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것이 이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시며 이혼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렇다 해도 이혼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으니,

첫째, 부부 중 한 쪽이 세상을 떠난 경우이다.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연히 이혼한 것이 되어 전에 부부의 도에 얽매이지 않고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고 그것은 합당한 것이다.(로마서7:2-3 신247쪽)

둘째, 부부 중 한 쪽이 음행 죄를 범했을 때이다.(9절)

인간의 심성이 타락되고 유혹을 받아 부부관계 외의 이성 문제를 자기의 능력인양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외의 모든 이성 문제와 동성의 문제는 다 음행 죄이며 부부 어느 한 쪽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이혼하도록 허락이 되고 재혼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행방이 불명한 때이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부부가 헤어져서 서로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행방을 안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합쳐질 수 없는 때에는 이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다.(에레미야29:4-6)

넷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혼할 수 있다.(고전7:13-15 신270)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정상적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며, 신앙이나 ? 신앙을 버리고 자기를 따를 것이냐 ?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는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단이나 사이비한 신앙에 빠져서 자기의 이단적인 신앙을 따르라고 강요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를 따를 것이냐 ? 참 신앙을 따를 것이냐 ?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도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복을 주신 것은 부부가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현실의 삶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라고 하심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거나 이단이나 마귀의 집단에 빠진 어느 한 쪽을 따른다면 그것은 다 같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라도 생명 길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위 네 가지 원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범죄이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이기내면 행복한 날이 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비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순

주 일 낮 예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84 (새 찬송가 2, 13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사람이 어떤 연고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 사람을 지으신 이가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

◎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

- 아 멘 -

찬 송 : 186 (새 찬송가 254)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19 : 3 ~ 9 신 31쪽

찬 송 : 신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결혼과 이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79 (새 찬송가 204)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8 월 안배]

남, 김강환 조상희 공옥련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홍희석 집사 (다음 임진섭 집사)

기 도 : 김정숙 집사 (다음 이춘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김영자 집사 (다음 정차성 집사)

기 도 : 임수정 집사 (다음 윤안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여름 사경회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이병규 목사님의 성경해설 사경회가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12일) 오전 10시에 차가 출발합니다.

2. 남녀 각 전도회 월례회

다음 주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는
각 실에서 종전대로 남녀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잘 참여하여
회원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봉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봉암 주택

음주의 말씀 요약 (8 / 18) 2013

제 목 :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 쓰시는 예수님
성경말씀 : 마태복음 9 : 9 -13

이 세상 모든 그럴듯한 일에는 다 자격이 있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서부터 택시 기사나 대기업에 간부까지, 또한
일용직에서부터 1급 공무원이나 장차관 총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도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되려면 그만큼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즉, 그 어떤 자리이든 좋으면 좋은 자리일수록 더 엄격한 자격
이 요구되고 그에 맞게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나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영광스럽고
축복된 자리에 서려면 그 얼마나 좋은 자격을 갖춰야 할까?
도덕적으로나, 지식적인 학벌로, 또한 가문의 문벌이나 외모와
건강 용모 언변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적 재능까지, 여러 방면
에서 두루두루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 백성이나 사도의 직분에 이르기까
지 그 어떤 자격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불
때는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생각하셨다.

그렇기에 당시 도덕적 종교적 최고의 자격을 갖춘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하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고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에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첫째, 죄인들을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 한장은 세리 마태의 집이었다. 당시에는 남자
죄인의 대표로 “세리”를 꼽았고, 여자 죄인의 대표로 “장기”를
꼽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한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 옆에 도덕적
종교적으로 깨끗함을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
을 받는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자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자신의 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인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둘째,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죄인들을 부르지만 하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부정함과 더러운 죄를 낱알이 아시면서도 함께하시며
교제하시고, 죄의 더러움과 죄의 결과 무서운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죄의 더러움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죄를 용서 받고 천국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

셋째, 죄인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주셨다.

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의 형벌에서 건짐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께서
십자가 죽음의 형벌로 죄인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다.
이를 대속(代贖) 또는 구속(救贖)이라 하며, 그 누구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하여도, 예수님께서 죄인 자신의 그 흉악한 죄
값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복락의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넷째, 죄인들을 쓰셔서 천국의 생명운동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천국운동을 하시는데
완전한 사람을 뽑아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죄인을 부르
러 오셨다” 하셨고, 죄인들을 구속하여 천국백성으로 삼으신 후
에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도 없었
고 또한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큰 실수를 여러 번 했고, 야고보와 요한에
게는 성질이 불같은 탓에 “우리의 아들”이라했다.(마가3:17)

바울 사도 역시 “몸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후10:10)

그렇다고 아무나 천국 일군으로 세우고 쓰셨는가? 아니다.

육신적으로 갖춘 어떤 자격을 보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1)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2)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만 맞으면 그 누구든지 존귀하게 세워 쓰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걸 보시고 세워주시며 역사해 주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하나님이

세상들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멸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비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되나니

1부 예배 (오전 7:45 포용관) 전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전례 김 성 진 목사

주 약 : 성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음 : 1, 13 (새 찬송가 1, 6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 많은 제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만하기를

● 지적하여 너희 선생은 제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 법을 자에게 라야 쓸데 있느니라.

○ 내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고

● 죄인을 부르려 왔노라, 하시니라

- 아 멘 -

찬 음 : 186 (새 찬송가 254)

기 도 : 목사

성경독 : 목 사 : 마태복음 9 : 9 ~ 13 신 13쪽

찬 음 : 찬양대

만음전포 : 목 사 : 죄인을 불러 쓰시는 예수님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음 : 195 (새 찬송가 261)

면 보 : 성령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모)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사

성기는 사람들 [8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철
여, 오정순 노인숙 이준자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임진섭 집사 (다음 임수정 집사)

기 도 : 이준희 집사 (다음 이우진 권사)

만음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함참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정자성 집사 (다음 공옥철 집사)

기 도 : 윤만준 집사 (다음 정기화 집사)

만음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함참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음, 조동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중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음, 조동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포용관)

1 부 : 만음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환년부 예배 (주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정년이어 내 정년의 삶을 증거위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결과물이 보는데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심을 알라

음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년도 신앙 표어 말씀

영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회 소 식 *****

1. 남녀 각 전도회 월례회

오늘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에는

각 집에서 중전대로 남녀 각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잘 참여해서

회원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환신예배안내

다음 주 오후 2시 예배는

사라 여전도회 환신예배로 드립니다.

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음, 조동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포용관)

1 부 : 만음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음, 조동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포용관)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중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음, 조동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본당)

1 부 : 만음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환년부 예배 (주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정년이어 내 정년의 삶을 증거위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결과물이 보는데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심을 알라

음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

왼쪽에는 선하고 훌륭한 사람, 오른쪽에는 악하고 못된 사람과 함께, 이런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고 훌륭한 사람에게서만 배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악하고 못된 사람에게서도 배워서 자기를 바로 세워 나간다.

배운다는 것은 악하고 못된 것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고, “아! 나는 저렇게 악하고 잘못된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하고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은, 인간 최초의 살인자요, 멸망자의 대표인 “가인”이다. 이를 살피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 망할 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축복 받을 길에 서고자 함이다.

“가인”이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죽인 원인은,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시샘하고 미워해서였다.

동생 아벨이 형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손해준 것도 아니다. 너무도 착하고 믿음이 좋은 동생이었는데 그냥 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벌하시려고 가인에게 물어보신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타난 가인의 언행은 ?

첫째,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다. (9절)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쳐 죽이고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가인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잡아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 많아 흉악하고 무서운 중죄를 저지른 자에서부터 사소한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돌어나기 전까지는 다 잡아떼고 거짓말로 일관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둘째,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며 죄로 인정할 안 했다. (9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가인의 말속에는 자신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다.

죽 동생인 아벨이 형인 자신에게 미움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인의 5 대손인 “라멕”은(23절) 옆에 사람이 자기 몸에 조금 상처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쳐 죽였고, 소년이 자기를 좀 상하게 했다 해서 그 소년을 죽여 버렸다. 그렇게 살인을 하고도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해서 그런 것이지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 했다.

오늘날도 정치권이나 경제계에 중한 죄들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자들을 보면, 전해 내려오는 관행으로 그런 것이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 시키며 자신들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잘못을 하고도 주위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망할 자들의 길이다.

셋째, 회개를 아니 했다.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의 그 땅과 아벨이 흘린 피를 증거삼아 가인의 죄를 밝히셨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들어났음에도 뉘우치는 기색이나 회개하는 자세가 전혀 없이 당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일로 지옥 형벌을 더 키울 뿐이다. (시7:11-13)

우리는 어떠한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다 해도 회개 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 복을 받게 된다. (사57:15 구1037)

넷째, 자기 죄의 형벌을 과중하게 여겨 받지 않으려 했다. (13절)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 믿음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그 형벌은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 정처 없이 유리방향하는 것”이었다. 잘못이 없는 착하디착한 동생을 죽인 살인죄에 비하면 가벼운 형벌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벌이 무거워 견딜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가인의 후손으로 살인자인 라멕도 자기를 벌하는 자는 77배나 벌을 더 받을 것이라 우겨댄다. 가인과 그 후예인 멸망할 자들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잘못을 할 수 도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시32:1-6)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합당한 길을 가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돌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거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정준

만주 : 임혜진 박진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96 (새 찬송가 2, 8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가인이 들에 있을 때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 가인이 말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 아 멘 -

찬 송 : 330 (새 찬송가 272)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창세기 4 : 8 ~ 15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말망 할 자에게도 배운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84 (새 찬송가 252)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9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라회 헌신예배

사 회 : 임수정 집사 (다음 장 흥 집사)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광영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공옥렬 집사 (다음 이성혁 집사)

기 도 : 정기화 집사 (다음 최순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회 소식 *****

1. 사라 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사라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다 같이 정성으로 준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헌신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전도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선한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함께 하시는 만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4. 금요 밤 기도회

30일 금요 밤 기도회는

루디아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준비하여 함께하시면 좋습니다.

5. 결혼식 안내

박정은 집사님 아들 광훈 군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8월 31일(토) 오후1시. 상무지구 라뽀웨딩홀 2층.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염규봉 님 풍암동 현대아파트 101 동

☺

믿음의 사람들의 앞길에는 꿈같은 일들이 전개된다.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 살펴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 상상에 지나지 않을 일들이 장래에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가지가 본문에 말씀하신 천년왕국이다.
본문에 말씀하신 천년왕국에 대하여 세 가지 학설이 있다.

1. 무천년설 (無千年說)

천년왕국이 없다는 설이다. 본문에 말씀한 1,000 년이란 수를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1,000은 천만을 의미하는 10을 3제곱해 나온 수라 하여 천년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라 설정하고, 복음이 천만하게 전파되어 사람이 살기 좋은 상태를 천년왕국이라 하며 사실은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잘못된 설로 인간 스스로의 해석이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2~3절에, 사단을 “잡아” 1,000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잡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1,000년 시대에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결박하고 가둬서 사단의 세력이 그 어떤 미혹을 하는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한다. 는 곧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원전무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에 무천년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전지기를 전연으로 보고,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그 이후

이제와 말세까지 사단 마귀의 미혹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 초림에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가둬지기는커녕 오히려 구약시대보다 지금이 더욱 더 사단의 역사가 극심하게 활동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이 난무하고 있다.

(고후11:13~15 신297, 살후2:9~12 신335, 뱀전5:8~9 신382

요한1서4:1~3 신391, 요한계시록13:12~15 신412)

그러므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4~6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지킨 “자들이”

“살아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한다.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창세 이래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년동안 왕으로서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누린다는 뜻이다.(살전4:14~18 신332)

그러나 무천년자들은 이 말씀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 영혼이 낙원에서 누리는 상태라고 달리 해석하여 진리의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무천년자들의 학설과 그 외의 성경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2. 후천년설 (後千年說)

복음전파와 인간들의 성품순화로 에덴동산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천년동안 이뤄진 다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이다.

그러나 무천년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물질문명의 발달로 육체의 생활은 진보되었지만 사람의 성품과 영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타락하여 후천년설의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3. 전천년설 (前千年說)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귀는 무저갱에 가둬져 활동을 못하고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믿고 죽어 천국복락을 누리던 영혼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로 부활하여 천년동안 왕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의 확실한 증거가 본문말씀과 성경 전체의 뜻이다.(살전4:14~18)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의 삶은 이렇게 전개된다.

- 1)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모두 다 용서 받는다.
- 2) 죄 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중생, 거듭남)
- 3)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
- 4) 몸이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린다.
- 5) 예수님 재림 전 세상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
- 6)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던 영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신천신지에서 천년동안 왕의 영광과 존귀를 누린다.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던 성도들은 신령한 천사들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의 복락을 누린다.
- 7) 천년왕국이 다하면 모든 인생의 최후 마지막 심판이 있다.
- 8) 믿은 사람은 영원무궁한 천국복락의 영생의 삶을 산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형벌을 당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개되는 이런 축복은 다 꿈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 꿈같은 일들이 현실로 이뤄지니 축복인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한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36 (새 찬송가 1, 36)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 잡아 1천년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 또 내가 보니 믿음과 말씀을 지킨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을 하더라.

- 아 멘 -

찬 송 : 168 (새 찬송가 180)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계시록 20 : 1 ~ 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천년왕국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69 (새 찬송가 182)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9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인순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장 흥 집사 (다음 윤문석 집사)

기 도 : 광영희 집사 (다음 박수진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성혁 집사 (다음 김영님 집사)

기 도 : 최순희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 제직회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3시 10분에

종전대로 월례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전도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선한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3.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함께 하시는 만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4. 금 요 밤 기 도 회

6일 금요 밤 기도회는

에스더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준비하여 함께하시면 좋습니다.

5. 결 혼 식 안 내

노유균 이경희 집사님 차남 정현 군의 결혼식이

7일(토) 오전 11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w웨딩홀유티프런트에서 열립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염규봉 님 풍암동 현대아파트 101 동

☺

금주의 말씀 요약 (9 / 8) 2013

제 목 : 천년왕국 2

성경말씀 : 이사야 11 : 1 ~ 9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들이지만,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일이나 손바닥 안에 든 스마트 폰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영상통화를 하며, 여의도에 63빌딩을 세우고, 핵폭탄 하나로 일본을 망하게 한 일들이 과거 천 년 전에는 모두 공상에 그칠 수밖에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었다.

인간의 역사에도 문명불질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생각 못한 꿈같은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로 이뤄져 나가고 있다.

전 주에는 신약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천년왕국을 살펴보았거니와 오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살펴서 믿으며 은혜를 받고자 한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선지자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징벌을 선포하시면서도 한 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뤄질 천년왕국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본문 1절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새 곧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건져 내 구원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뜻한다.

2~5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며 천하 만물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여 상과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6~10절은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상과 복으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천년 동안 왕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요 이것이 곧 천년왕국이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천년왕국까지의 과정과 천년왕국의 즐겁고 축복된 생활을 본 말씀에서 살펴보자.

1.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에게 그 영혼이 받들려 천국으로 가서 평화롭고 즐거운 안식과 복락을 누린다.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값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그 영혼이 자기 죄 값을 지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 죄 값의 형벌을 받는다.

(마태 8:11, 누가 16:19-24, 23:42-43)

2.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땅에 소멸되었던 육체와 결합하여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

그때에 살아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가운데 변화하여 천사들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 공중으로 들려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 (누가 8:49-56, 요한 11:25-26, 43-44, 데살전 4:14-18)

3.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정결케 하신다.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천사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려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의 불신앙 자들과 잡종교인들은 부패한 성질과 욕심에다 사단 마귀의 충동을 받아 서로 죽고 죽이며 싸우는 난리 속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악한 것들을 불로 심판하여 다 쓸어버리시고 마귀 귀신의 세력은 무저갱에 가두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다. (고전 6:2-3, 벰후 3:3-7, 3:10-13, 계시록 2:25-27, 20:1-3)

4.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린다. 세상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신 후에는 하늘이 새 하늘, 땅이 새 땅이 되어 지상 낙원이 되고 공중에 있던 성도들이 다 내려와 천 년 동안 즐겁고 축복된 지상 낙원이 이뤄진다.

그 때에 1)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2)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3)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4)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5)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6)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며

7)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8) 믿음의 사람이 주님 은혜가운데 축복에 축복을 누린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 돌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성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비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46 (새 찬송가 2, 31)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이새의 출가에서 한 쌍이 나며

◎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며

◎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 장난하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나 상함이 없으리라. - 아 멘 -

찬 송 : 220 (새 찬송가 234)

기 도 : 홍익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이사야 11 : 1 ~ 9 구 979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천년왕국 2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23 (새 찬송가 236)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9 월 안내]

남, 홍익남 조상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준자 이인순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윤문석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기 도 : 박수진 집사 (다음 김태용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김영님 집사 (다음 이성숙 집사)

기 도 : 박영수 집사 (다음 이영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3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익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일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시길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회 소식 *****

1. 화요 전도사역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명을 살리는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전도사역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선한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2.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함께 하시는 만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3. 금요 밤 기도회

13일 금요 밤 기도회는

마리아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준비하여 함께하시면 좋습니다.

4. 가을철 대 심방

1교구 전 구역 = 9월 23일 ~ 28일 주간

2교구 전 구역 = 10월 1일 ~ 5일 주간

3교구 전 구역 = 7일 ~ 12일 주간

4교구 전 구역 = 14일 ~ 19일 주간

5교구 전 구역 = 21일 ~ 26일 주간

6교구 전 구역 = 28일 ~ 2일 주간

각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염규봉 님 풍암동 현대아파트 101 동

☺ 윤복희 님 화정동 주택

☺ 이영아 님 풍암동 주은모아 105 동